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국가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강기정 광주시장 모두발언

초광역협력은 청년 떠나지 않는 일터 만드는 것 수도권 1극→다극 체계로 지방 경쟁력 키워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국가균형발전은 발전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것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전 세계는 지금 인구 위기에 있고 대한민국도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감소’보다 심각한 것이 ‘출렁’이 먼저인 것 같다”며 “1960년 595만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3.8%를 차지했던 호남 인구가 2023년 현재 501만 명으로 전체의 9.7%로 감소했고 그러는 사이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7%에서 50.5%로 대한민국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이지만 출렁의 이유는 좋은 일자리와 문화를 찾아 수도권

으로 몰려가는 청년에 핵심에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사람과 기업이 떠나 피폐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며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1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바꿔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고, ‘초광역협력’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이제 우리도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하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선경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호남 미래 100년 함께 고민”

●김영록 전남지사 모두발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비교우위 산업 맞춤형 특례 확보 진정한 자치 실현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전남·전북·광주 3개 시·도가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2004년 결성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꾸준히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호남권의 화합과 공동

발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라며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과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

해서는 전남·전북·광주 3개 시·도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공동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SOC 확충과 첨단산업·관광 등 초광역 협력산업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 자체적으로도 지방소멸 극복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관광·첨단산업·농어업과 같은 비교우위 산업 맞춤형 특례 확보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결국에는 무늬만 지방자치로 벗어나 모든 시·도에 독일 연방 주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며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전남·전북·광주 3개 시·도는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며 오랜 시간 함께 자랑스러운 호남의 천년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호남인의 피 속에 면면히 이어온 끈끈한 연대의식과 불굴의 저력이면 지금의 위기 역시 3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생활이쁘미’ 외국인 정착 지원

외국인 등 봉사자 30명 구성

광주시는 4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초기 정착 지원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광주생활이쁘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국인주민 광주생활이쁘미’는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광주시민과 태국,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등 외국인주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신국가의 사회·문화

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 사이 상호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광주생활이쁘미 봉사단’ 임명장을 수여하고 봉사단장에 김분옥씨(광주이주여성연합회장)를 선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캐릭터 ‘블랑카’로 활동했던 개그맨 출신 정철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가 ‘유키즈 온더다문화’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광주시는 ‘광주생활이쁘미’를 통해 정착 초기 외국인주민에게 사회보장제도 및 교통, 행정, 의료 등 생활 편의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빠른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경 기자

전남도-경기호남향우회 ‘도정 현안 해결’ 힘 모은다

신안서 도정설명회...특별자치도·의대 설립 협력기로

전남도는 4일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 고향방문 및 도정 설명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설립 등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향 발전을 위해 애쓰는 향우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김포중 향우회장과 윤봉남 명예회장을 비롯한 45여명의 향우회원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설명한 뒤 향우회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포중 회장과 윤봉남 명예회장은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하고 김 지사에게 열정적인 도정활동을 펼치고 향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예우를 기울여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호남인의 상’을 수여했다.

김포중 회장은 “천사의 섬 신안에서 도정설명회를 하게 돼 매우 뜻 깊고 큰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며 “경기도호남향

우회총연합회는 전남도에서 직접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든든한 버팀목인 향우회원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전남도는 에너지·우주항공·데이터·바이오 등 지역 미래 100년을 밝힐 첨단전략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가 시행한 지 2년이 안 돼 50만명을

돌파했다. 향우들의 적극적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남 발전의 동반자이자 영원한 서포터즈인 향우와 소통하며 고향 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200여개 도내 할인가맹점 혜택을 누리며 전남의 관광·축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지역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KoROAD 도로교통공단